

제네시스·기아·현대, JD파워 신차품질조사 1~3위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JD파워(J.D. Power) 신차품질조사에서 1~3위를 석권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시장조사업체 JD파워가 전날 발표한 '2019 신차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2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63점(100대 당 품질불만건수 63건)으로 작년보다 5점이 개선됐다. 제네시스는 2017년부터 별도 브랜드로 신차품질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독일 포르쉐, 일본 렉서스 등을 제치고 첫해부터 3년 연속 1위였다. 프리미엄 브랜드 2위인 링컨(84점)과는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G70은 콤팩트 프리미엄 차급 1위로 '최우수 품질상(Segment Winner)'을 받았고, G80은 중형 프리미엄 차급에서 우수 품질차종에 선정됐다. G70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난해부터 '2019 북미 올해의 차', 모터트렌드 '2019 올해의 차'에 선정된 데 이어 또 호평을 받아냈다.

이번 신차품질조사에서는 현대차그룹 브랜드들이 모두 쾌거를 이뤘다. 기아차는 일반 브랜드 부문에서 1위, 전체 브랜드 기준에서는 제네시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일반 브랜드 2위, 전체 브랜드 3위를 기록했다. 특히 기아차 5년 연속 일반 브랜드 1위를 유지했다.

기아의 리오, 포르테, 스포티지, 세도나가 동급 차종에서 1위로 최우수품질상을 받았다. 쏘렌토, 현지명 옵티마, 스타링어는 우수 품질 차종으로 선정됐다.

현대차의 싼타페는 2년 연속 '최우수 품질상'을 수상한 데 이어 엘란트라, 투싼과 코나, 쏘나타, 엑센트, 벨로스터가 우수 품질 차종으로 뽑혔다.

JD파워 신차품질조사는 1987년 시작된 세계 최고 권위의 품질조사다. 33회째를 맞은 올해는 프리미엄 브랜드 14개, 일반 브랜드 18개 등 32개 브랜드, 257개 차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JD파워 조사결과는 미국에서 자동차 구매시 주요 기준이 되며, 업체 품질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구글, 샌프란시스코 주택난 해결에 나선다

구글이 비싼 집세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만 일대의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선다.

19일 '서울경제'가 CNBC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구글은 10억 달러를 투자해 4만5,000명 이상의 구글 직원이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만 일대 주택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틴뷰 일대 지역사회는 구글이 이 지역에서 회사를 확장하면서 이미 팍팍한 주택 시장을 잠식하고 오래 살아온 거주자들을 쫓아낸다고 불만을 표현해왔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블로그에 "이 지역 전체에 걸쳐 특히 두드러지는 긴박하고 복잡한 이슈가 있다."며 "바로 주택"이라고 글을 썼다. 피차이는 "구글이 베이 지역 전체에서 확장하면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는 주택에 투자해왔다. 하지만 아직 더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숙자 문제와 주거 비용 상승에 따른 주거 이전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에 5,000만 달러를, 적정가격의 주택을 보급하는 개발업자를 위한 투자펀드에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글은 보유 중인 7억5,000만 달러어치의 부동산에 대해 10년에 걸쳐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이들 부동산의 대부분은 현재 상업·업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샌 리카도 산호세 시장은 구글 최고경영자의 발표를 환영했다. 그는 "우리는 오늘 발표가 비싼 집세로 고생하는 수천 명의 산호세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주택으로 가시화하도록 구글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글이 미 행정부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을 것이라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미 반도체 업체들 “화웨이 제재 풀어달라”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미국 기업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화웨이에 반도체 등을 공급해온 미국의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미국 정부에 화웨이 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텔과 자일링스 등 미국의 반도체 업체 최고 경영진들은 지난달 말 미 상무부의 회동에서 화웨이와의 거래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퀄컴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 상무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회사인 중국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승인 없이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등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고 이후 화웨이와의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화웨이가 미 반도체 제조사들의 '큰손'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화웨이가 전 세계에서 사들인 반도체 부품 약 700억 달러 가운데 110억 달러가 퀄컴과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미국 기업들의 제품이었다. 브로드컴의 경우 거래제한 여파로 올해 매출 전망을 당초 발표했던 245억 달러에서 225억 달러로 20억 달러 하향 조정했을 정도다.

이 업체들은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는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서버 등은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처럼 보안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상무부는 "일상적으로 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 관련 요구사항에 대응하지만, 기업들의 이번 대응이 화웨이 제재 완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지난달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런칭페이 화웨이 창업자 겸 회장은 17일 선전 화웨이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월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가 40% 줄었다고 고백했다. 런칭페이는 또 미국의 제재에 따라 내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의 감산에 들어가면서 매출이 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플러튼 / 라미라다 / 헌팅톤비치 / 부에나파크 / 실비치 / 스텐톤 / 로스알라미토스 / 파운틴벨리 / 사이프레스 / 라팔마 / 브레아



싸고 좋은 매물들을 로즈메리가 찾아드립니다!

부에나 파크

방3/화2, 건평 약 1,700sf
새마루 바닥
리모델링
매력있는 단장된 집

59만 9천 9백

부에나 파크

방3/화2, 건평 약 1,300sf
밝고 넓은 집
완전 리모델링
새지붕, R.V.주차장

59만 9천 9백

사이프레스 (타운하우스)

방3/화2, 건평 약 1,300sf
매력있는 타운하우스
그라나잇 조리대
좋은학군

49만 9천 9백

사이프레스 (타운하우스)

방3/화2, 건평 약 1,500sf
새목재 바닥
신선한 리모델링
옥스포드 고등학교

49만 9천 9백

파운틴 벨리(콘도)

방2/화1, 건평 약 900sf
12년된 새콘도
저렴한 관리비
문화시설 완비

38만 9천

플러튼

방4/화2, 건평 약 2,000sf
고풍스러운 지역
PAID OFF된 태양열 판넬

68만 4천

플러튼(콘도)

방3/화2, 건평 약 1,800sf
높은 천장
아머릿지하이츠소핑(도보거리)
원래소유주

54만 9천 9백

엘바인(콘도)

방2/화2, 건평 약 1,200sf
완전 리모델링
쇼핑몰, 공원
식당가(도보거리)

59만 9천 8백

라미라다

방3/화2, 건평 약 1,800sf
넓은 리빙룸
바이올라 대학
라미라다고등학교(도보거리)

58만 9천

스텐톤(콘도)

방3/화3, 건평 약 1,300sf
가격인하
아치형 천장
프리웨이 편리함

48만 9천

Rosemary Hur
로즈메리 허
Realtor® | DRE #01967942
C. 714.334.2292
O. 714.537.1111
realtorrosemary3819@gmail.com